

人文論叢

82권 2호

2025년 5월

일반 논문

슈메르어 논쟁 문학의 시와 이야기*

윤성덕**

초록 슈메르어로 쓴 논쟁문학은 전통적으로 운문 형식으로 쓰고 필요에 따라 이야기를 삽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고대 서아시아 사람들이 현대 문학 전통 안에서 말하는 시와 산문 개념을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적으므로 실제 문학작품과 역사적 배경을 통해 당시의 문학적 현실을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먼저 문학 이론 측면에서 이야기 시에 관한 연구를 참고해 보면, 시나 이야기라는 가름보다 예술적인 글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더 중요하고, 시와 이야기는 필요에 따라 섞어 쓸 수 있다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관습은 문학을 창작하는 행위자들의 활동방식과 그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슈메르 사회 안에서 췌기문자로 문학작품을 창작하던 자들, 즉 전문 서기들의 독특한 문화를 고려해야 한다. 췌기문자를 다루는 서기들은 종종 하나의 정보나 심상을 한 줄 또는 한 칸에 담은 목록 형식의 문서를 여러 가지 양식으로 작성했는데, 이러한 목록은 형식적으로 시와 유사한 면이 있어서, 슈메르어로 창작한 문학작품들이 대부분 이런 운문 구조를 띤 것이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실제 논쟁 문학 작품을 분석했을 때도 한 줄에 한 가지 주제나 심상을 담은 운문 형식이 발견되었으며, 대구법과 각종 비유법을 함께 사용하였다. 또한 대화와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거나 특정 주제를 강조하는 문맥 속에서 이야기가 유기적으로 엮여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어떤 경우에는 이야기 속에 실존 인물들이 언급되기도 하여, 이들 이야기가 정치적인 함의를 담고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렇게 슈메르어 논쟁 문학 양식은 시와 산문이 자연스럽게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한편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문학 양식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시적인 대화가 점차 줄어들고 이야기가 자리를

* 이 논문은 2023년부터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NRF-2023S1A5B5A16079848).

** 연세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점점 더 많이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슈메르어 논쟁문학이 고정된 하나의 문학 양식에 머물지 않고, 시와 산문의 경계 사이를 끊임없이 넘나드는 역동적인 상태에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논쟁문학, 슈메르어, 시, 이야기, 문학양식

1. 슈메르어 논쟁 문학

슈메르어로 쓴 문학작품들 중에는 신화와 서사시가 있고, 왕이나 신을 대상으로 쓴 찬양시, 문학적 성격이 강한 편지와 편지문 형식의 기도, 비극적인 과거를 노래하는 애가, 역사문서 몇 가지, 그리고 보통 지혜문학이라고 부르는 속담이나 교훈 모음집과 대화나 토론 형식으로 쓴 논쟁 문학이 있고, 민담에 가까운 이야기들도 있다.¹

그중에서 논쟁 문학은 현대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서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는 토론과 달리 상대방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확립하려고 벌이는 말싸움에 가까운데, 원래 말을 하지 않는 존재들이 나와서 정교하고 장난스럽고 때로 왜곡된 논리를 펼친다. 기원전 18세기경부터 현대 이라크 남부 지역에서 슈메르어로 창작했고 후대에 아카드어 문명도 이 문학 전통을 계승했다.² 문학적 구조는 논쟁이 일어난 배경을 설명하

1 슈메르 문학의 양식에 관해서 D. O. Edzard and W. Röllig (1990), "Literatur," *Reallexikon der Assyriologie und vorderasiatische Archäologie* (eds. by Erich Ebeling and Bruno Meissner), Berlin and New York: de Gruyter, pp. 35-66을 보라.

2 슈메르어로 쓴 논쟁 문학 작품들은 열 개 정도가 있고, 대부분은 현재 옥스퍼드 대학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에 슈메르어 원문 지역과 영문 번역이 게시되어 있다[https://etcsl.orinst.ox.ac.uk/cgi-bin/etcsl.cgi?text=c.5.3*#(접속일: 2024. 12. 17.)]. 예를 들어 농사에 누가 더 도움이 되는지 논쟁하는 '괭이와 쟁기,' 인간에게 누가 더 도움을 주는지 논쟁하는 '암양과 곡식,' 신에게 가져온 제물을 놓고 누구의 공인지 다투는 '여름과 겨울,' 서로 더 나은 존재임을 자처하는 '새와 물고기,' 서로 쓸모가 많다고 주장하는 '은과 구리,' 그리고 더 유용하다고 자랑하는 '위성류 나무와 대추야자 나무'의 논쟁이 있

는 서론, 양자가 대화하는 형식의 논쟁, 신이나 왕이 승자를 결정하는 결론이 3단계로 확립되어 있고, 이 구조에서 벗어나는 작품은 별로 없다.

화자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 학자들은 이런 작품들을 우화라고 생각했으나, 문체가 이야기가 아니라 운문에 가깝고 대화 형식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글을 부를 마땅한 용어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³ 그러나 용어 결정보다 문학양식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가 더 의미가 있을 텐데, 대개 학자들은 논쟁 부분을 운문으로 창작한 시이고 가끔 사건을 서술하는 이야기를 삽입했다고 설명한다.⁴ 기능적으로 매우 분명한 설명이지만 과연 고대인들도 이런 틀에 따라 생각하며 작품을 창작했을지는 의문이다.

물론 현대 독자에게 시는 “자연이나 인생에 대하여 일어나는 감흥과 사상 따위를 함축적이고 운율적인 언어로 표현한 글”이라고 잘 알려져 있고, 이야기는 “어떤 사물이나 사실, 현상에 대하여 일정한 줄거리를 가지고 하는 말과 글” 또는 그렇게 “허구적으로 꾸며 나간 산문체의 문학 양식”임이

다. 이 작품들 외에 ‘나무와 갈대’의 논쟁 등 다른 작품들도 있는데, 아직 비평본이 출판되지 않았다. 보존 상태가 좋은 ‘암양과 곡식’, ‘새와 물고기’ 그리고 ‘팽이와 쟁기’에 관한 또 다른 연구는 Catherine Mittermayer (2019), ‘*Was sprach der eine zum andern?*’ *Argumentationsformen in den sumerischen Rangstreitgesprächen*, Berlin, Boston: Walter de Gruyter를 참조하라.

- 3 학자들이 사용한 다양한 용어들 중에는 언쟁(altercation), 다툼 문학(contest literature), 토론(debates), 토론 시(dabate poems), 논쟁(disputations), 논쟁 시(dispute poems), 논쟁 신화(disputation myths), 선례적 토론 시(precedence debate poem), 다투는 논쟁(Rangstreit-Debatte), 언쟁 시(Streitgedichte), 언쟁 대화(Streitgespräche), 언쟁 우화(Streitfabeln), 논쟁시(tensons), 지혜 논쟁(wisdom disputations) 등이 있다. Enrique Jiménez (2017), *The Babylonian Disputation Poems, With Editions of the Series of the Poplar, Palm and Vine, the Series of the Spider, and the Story of the Poor, Forlorn Wren*. Leiden and Boston: Brill, p. 8을 참고하라. 본 논문에서는 논의를 위해 ‘논쟁 문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 4 Jiménez (2017), p. 11; 참고, Edzard and Röllig (1990), p. 43; G. J. Reinink and H. L. J. Vanstiphout (1991), “Introduction,” *Dispute Poems and Dialogues in the Ancient and Medieval Near East: Forms and Types of Literary Debates in Semitic and Related Literature* (eds. by G.J. Reinink and H.L.J. Vanstiphout), Leuben: Department Oriëntalistiek and Uitgeverij Peeters, pp. 1-2.

분명하다(표준국어대사전). 그러나 이런 관점에서 슈메르어 논쟁 문학을 관찰하고 고대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운문과 산문을 구분해서 사용했다고 분석하면 과연 그들의 문학작품을 오해 없이 해석할 수 있을까? 운문과 산문을 형식에 따라 구분하고 시와 이야기를 완전히 다른 문학 양식으로 보는 관점은 시대착오적인 해석을 낳지 않을까?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본 논문은 시와 이야기에 관한 문학 이론들을 살펴보고, 고대 슈메르 문학과 어울리는 해석의 틀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틀을 통해 논쟁 문학에서 관련된 본문을 직접 해석하고, 고대 저자들이 이런 문학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 의도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2. 시와 이야기의 관계

2.1. 문학이론 측면에서 본 시와 이야기

슈메르 논쟁 문학에 나오는 운문과 산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비슷한 형식이라고 볼 수 있는 현대의 이야기 시(narrative poem)에 관해 학자들이 주장하는 문학이론을 살펴보자. 이야기(narrativity)는 대개 순차적으로 발생(sequentiality)한 사건이나 현상이 언어의 특정한 구조와 요소들을 통해 매개된다는(mediacy) 특징이 있다. 그러나 훔(Hühn)에 따르면 이런 요소들은 시에서도 나타난다.⁵ 시 안에서 시간 순서나 시인의 의도에 따라 문자열(syntagmatic string)이 이어지며, 행위자나 주인공의 생각, 기억, 욕망, 감정, 상상, 태도의 형태로 시의 줄거리가 드러나거나 암시된다. 시인은 주제와 화자 또는 주인공을 고려하여 특정한 구조에 따라 본문을 구성하고, 이를

5 P. Hühn (2010), "Plotting the Lyric: Forms of Narration in Poetry," *Literator* 31(3), pp. 17-47.

통해 때로 행위자와 인식자의 초점 사이에서 때로 화자와 경험하는 자 사이에서 다르게 느끼는 감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또는 인식적 감정적 용어로 매개한다. 그러므로 시인은 “화자가 직면하는 정신적 또는 존재적 문제를 제시하고 다루기 위해 다양한 이야기 형태와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⁶

하이든(Heiden)은 시에 이야기를 섞어서 창작하는 방법을 두고 전통적인 견해에 반기를 들며, 서술형 시는 이야기와 시라는 두 가지 문학양식을 인위적으로 섞은 형태가 아니라 고대부터 최근까지 끊임없이 창작해 온 자연스러운 양식이라고 주장한다.⁷ 시(poetry)는 대개 연달아 배열되고 구분된 행으로 표현하며(segmentivity), 멈춤과 침묵을 배경으로 구획된 단위 안에 의미를 표현하는 양식이라고 이해하고, 반대로 이야기에서는 점진적으로 특정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연속성(progressive sequencing)이 중요하다고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이런 상식은 이야기를 주요 사건과 글로 쓴 본문의 조합이라고 단순화시키며, 사실을 기록하여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보고문(documentary reports)과 상상과 허구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감각적 자극을 전달하는 문학(imaginary fictions)을 구분하지 않는다.⁸ 예술적인 목적을 위해 창작한 이야기는 저자/화자의 재량에 따라 어떤 형식이든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런 성격이 형식적인 불순함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하이든은 이렇게 설명한다.

시(lyric)는 일종의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허구의 소설과 희곡과 같은 언어로 쓴 예술작품과 목적, 표현법, 그리고 다른 차원의 특징을 공유한다. 이야기(narrative)도 어떤 경우에 일종의 예술 작품이 될 수 있지만(허구의

6 Hühn (2010), p. 44.

7 Bruce Heiden (2014), “Narrative in Poetry: A Problem of Narrative Theory,” *Narrative* 22/2, pp. 269-283.

8 Heiden (2014), p. 271.

소설), 다른 경우에는 예술 작품이 아니다(사실을 기록한 보고문).⁹

그러므로 문학적인 이야기와 시를 본질적으로 다른 문학양식으로 취급하고 이를 기준으로 슈메르어 논쟁시를 분석하는 것은 현대 사회의 문화를 기준으로 고대인들의 창작활동을 재단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이든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야기와 시의 관계를 재고하기 위해서 문학의 역사적 현실을 논의해야 하며(작품을 창작하고 가르치고 전수하던 집단과 그들의 행위), 연구대상에 문학작품의 본문뿐만 아니라 지적인 행동을 하는 인간 행위자들의 공동 행위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⁰ 이 주장은 슈메르어 문학처럼 인류 문명 초기의 지적인 활동을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한 연구방법으로 채택할 수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슈메르어 이야기와 시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2.2. 슈메르어 시와 이야기

슈메르어에는 사실 시나 이야기를 가리켜 부르는 낱말이 따로 없다.¹¹ 어떤 곡조를 가리키거나 문체를 묘사하는 말은 있지만 산문이나 운문이라는 특징을 기준으로 글을 분류하는 습관이 없었던 것이다. 벨두스(Veldhuis)도 슈메르 사람들이 “문학에 관한 거대담론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고 이

9 원문은 다음과 같다. “Since lyric is a kind of artifice, it shares purposes, techniques, and other dimensions with verbal artifices such as fiction and drama; while narrative too is sometimes artifice (fiction), though sometimes it isn't (documentary report).” Heiden (2014), p. 272.

10 Heiden (2014), p. 276.

11 슈메르어로 šir₃라는 기호가 있는데, ‘노래’라는 명사 또는 ‘노래하다’라는 동사로 쓴다. 이 말이 ‘시’라는 개념에 가장 가까운 말일 것이다. 슈메르어 낱말에 관련된 정보는 The Pennsylvania Sumerian Dictionary를 참고하였다[<http://psd.museum.upenn.edu/>(접속일: 2025. 1. 20)].

야기와 시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지만, 허구성을 표현한 시 또는 이야기가 있었음은 사실이라고 주장한다.¹² 그렇다면 슈메르어 ‘시’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용어와 개념의 문제 외에도 슈메르어는 사어가 된 지 4,000년 이상이 지나 실제 사용례를 관찰할 수 없고, 점토판이나 돌에 남아 있는 기호를 해독하여 재구성한 언어이므로 정확한 발음이나 강세를 알 수 없으므로, 현대 문학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이야기와 시를 정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슈메르어 문학작품을 창작하던 역사적 배경과 문학활동을 했던 행위자들을 고려하여 다른 방법으로 이런 용어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슈메르어는 기원전 3200년경에 해당하는 고대 도시 우룩의 지층에서 물품의 이름과 숫자를 적은 문서가 발견되면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문서는 거의 그림문자에 가까운 기록이었고, 언어의 문학적 특징을 반영하지 않은 장부 또는 목록에 가까웠다. 슈메르 문자가 실제 언어를 반영한 문서는 기원전 2600년경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하는데(초기 왕조 시대), 이때가 되면 신과 왕을 주제로 삼은 찬양시나 신화들이 창작된다.¹³ 그 이후에 악카드 왕국이 등장하면서 지적으로 좀 더 조화로운 작품들이 등장하며 종교나 문학에 관련된 작품들이 등장했고, 기원전 18세기에 들어서면 이미 사어가 된 슈메르어 문학작품들을 선별하고 편집하면서 새롭게 표준화된 문학적 슈메르어가 등장한다. 이 시기 이후로 슈메르어 문학작품은 고대 전승을 따로 공부하는 서기학교를 중심으로 지식인들의 향유물이 된 것으로 본다. 슈메르 문자는 처음부터 행정이나 상업에 종사하

12 Niek Veldhuis (2003), “Sumerian Literature,” *Cultural Repertoires: Structure, Function, and Dynamics* (eds. by G. J. Dorleijn, Herman L. J. Vanstiphout), Leuven: Peeters Publishers, pp. 32-34.

13 이 문장과 다음에 이어지는 문학사 요약은 Piotr Michalowski (2010), “Maybe Epic: The Origins and Reception of Sumerian Heroic Poetry,” *Epic and History* (eds. by David Konstan and Kurt A. Raaflaub), Malden and Oxford: Wiley-Blackwell, pp. 8-9을 보라.

던 직업인들이 필요해서 발명하였고, 문학작품도 복잡한 필기체계를 익히고 사용하던 전문 서기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기록 방법을 역사순으로 살펴보자면, 처음으로 기록된 목록 형태의 문서(서기들의 낱말 목록들)가 구조 면에서 한 줄(또는 글상자 하나)에 한 가지 정보를 정리해서 쓰는 특징이 있어서 한 행 안에 특정한 심상을 함축적으로 묘사하는 운문에 가까워 보인다.¹⁴ 실제로 슈메르어로 창작한 문학작품들 중에 온전히 산문으로 창작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드물고 행에 맞춘 글쓰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추론을 뒷받침해 준다.¹⁵

이와 함께 운문으로 기록한 슈메르어 시는 반복법, 대구법, 은유법, 직유법, 그리고 이야기 안에 이야기를 설치하는 등 특징을 보여준다.¹⁶ 그 외에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반추와 수사학적 질문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반복법은 서사시에 자주 나오는 문학 기법으로 서사시에서는 이야기의 갈등과 전개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지만 논쟁 중에는 논거의 어투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다.¹⁷ 그러나 이런 문학적 표현법을 사용하는 작품을 무조건 시라고 규정할 수는 없으며, 이런 장식적인 언어를 통해 허구의 이야기를 서술할 수도 있다. 아마 구전 수사학의 전통을 지닌 저자가 이런 고상

14 Cemile Arzu Aytakin (2014), "On the Tracks of Literary Structure in Literary Work (a Sumerian Poem),"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58, pp. 45-46.

15 J. A. Black (2005-2012), "Poesie," *Reallexikon der Assyriologie und vorderasiatische Archäologie* (eds. by Erich Ebeling and Bruno Meissner), Bd. 10, Berlin and New York: de Gruyter, pp. 593-595.

16 시와 이야기를 구분하는 문제에 관해서 Sara J. Denning-Bolle (1987), "Wisdom and Dialogue in the Ancient Near East," *Numen* 34/2, pp. 225-228; Black (2005-2012), p. 595; Aytakin (2014), pp. 48-49을 보라. 특히 슈메르어의 비유적 용법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Jeremy Black (1998), *Reading Sumerian Poetry*,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를 보라.

17 Marianna E. Vogelsang (1991), "Some Questions about the Akkadian Disputes," *Dispute Poems and Dialogues in the Ancient and Mediaeval Near East. Forms and Types of Literary Debates in Semitic and Related Literatures* (eds. by G. J. Reinin and H. L. J. Vanstiphout), Leuven: Department Oriëntalistiek and Uitgeverij Peeters, p. 55.

한 산문(elevated prose)을 창작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때 내용이나 표현법에서 시와 이야기를 분명하게 구분하기 어렵게 된다.

좀 더 범위를 좁혀 지혜문학과 논쟁 문학을 위주로 살펴보면, 구전 전통을 통해 전하던 지식과 지혜로운 격언들을 수집하고 분류했을 뿐만 아니라 비교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했던 주역이 서기 학교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지식인들이었고, 가장 기초적인 작품이 목록 형태로 쓴 속담이나 교훈 모음집이었다.¹⁸ 그리고 논쟁 문학은 수집한 속담이나 격언을 특정한 주제에 따라 선별하여 대화라는 틀 안에 일정한 시간적 순서에 따라 배치한 작품이기 때문에, 수집과 분류 단계에 속한 글이지만 특정한 틀에 따라 변형시킨 작품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¹⁹ 문학양식 면에서 볼 때 이 단계는 수집과 분류 단계의 대표적인 양식인 목록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특정한 표현 방식을 반복해서 사용하며 각 행에 한 가지 심상을 표현하면서 현대인이 생각하는 시에 가깝게 서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논쟁 문학 속에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와 동일한 문학적 의도를 가지고 작성한 고상한 산문일 가능성이 높으며, 전혀 다른 문학양식을 혼용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반스팁훗(Vanstiphout)의 말처럼, 슈메르어 논쟁 문학의 문학양식이나 문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적은 없고 운문으로 논쟁하는 방법도 하나로 정하지 않았으며, 형태와 내용이 살아서 변화하는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다.²⁰ 그러나 슈메르어를 사용하던 서기들이 시와 이야기를 독립된 문학양식으로 인식하지 않았더라도 언어의 아름다움을 의식한 문학적인 글과 일상생활을 할 때 필요한 비문학적인 글을 구분해서 썼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 중에 속담이나 교훈 모음집과 같은 목록처럼 한 줄에 한

18 윤성덕(2024), 「고대 서아시아 지혜문학의 분류법: 〈주인과 종의 대화〉를 중심으로」, 『서양고대사연구』 69, p. 17.

19 윤성덕(2024), pp. 18-20.

20 H. L. J. Vanstiphout (1990), "The Mesopotamian Debate Poems, A General Presentation (Part I)," *Acta Sumerologica* 12, p. 297.

가지 심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문학적인 글이 존재했고, 이때 다양한 비유법도 함께 사용했다면, 이런 경우 시라고 부르기로 하자. 그리고 문학적 의도를 가지고 창작하였으나 위의 특징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문학적인 이야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시와 이야기의 특징이 논쟁문학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상호관계를 관찰하기 위해 이와 같은 잠정적인 정의를 사용하겠다. 이제 시와 이야기가 슈메르어 논쟁 문학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차례다.

3. 슈메르어 논쟁 문학의 시와 이야기

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슈메르 논쟁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실제 본문을 살펴보면 확인해 보도록 하자. 작품에 따라 시 이야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다른데, 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삽입된 형태도 있지만 이야기가 분명하게 전면에서 드러나는 작품도 있다. 비교 방법은 논쟁시의 구조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할 것이며, 특히 이야기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본문을 직접 인용하여 검토하도록 하겠다.

먼저 슈메르어로 기록한 논쟁시를 구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보존 상태가 좋지 못하여 전체 구조를 볼 수 없는 작품들을 제외하고

[표 1] 슈메르어 논쟁시 구조 분석

	서론(배경)	논쟁	결론(판결)
팽이와 쟁기	1-6	7-178	179-196
여름과 겨울	1-111	112-287	288-318
왜가리와 거북이	1-31	32-208	[...]
암양과 곡식	1-70	71-179	180-193
새와 물고기	1-28	29-147	148-190

다섯 작품을 행 번호에 따라 정리하였다. <팽이와 쟁기>의 논쟁은 전체 분량에 비해 서론 부분이 짧고 논쟁의 배경을 분명하게 서술하지 않았고, <왜 가리와 거북이>의 논쟁을 기록한 판본들은 뒷부분이 모두 훼손되어 남아있지 않다.

3.1. 서론에 나오는 이야기

논쟁이 시작되기 전에 신화적 배경과 논쟁의 배경을 설명하는 서론이 나오는데 <여름과 겨울> 그리고 <암양과 곡식>의 논쟁이 이 부분을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팽이와 쟁기>는 서론 부분이 매우 짧고 신화적인 요소 대신 팽이의 모양과 만드는 방법을 몇 가지 열거하는 식으로 꾸며고, <왜가리와 거북이>도 신화적 요소 없이 강가 풍경을 묘사하며 시작하고, <새와 물고기>는 엔릴과 엔키 신이 강과 식물과 가축을 만들어 세상을 운영하는 원칙을 정하고 왕을 임명했다는 이야기를 펼치지만, 훼손된 부분이 많아서 본문을 비교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여름과 겨울>의 논쟁은 이렇게 시작한다.²¹

1. [an-ne₂ nam]-nir-ra saġ mi-ni-in-il₂ ud dug₃ am₃-mi-e₃
2. [...] -ke₄ ġiš-hur ba-an-sig₁₀ uġ₃-e daġal bi₂-in-tag
3. [^den]-/lil₂\-le ki-a gud gal-gin₇ ġiri₃-ni nam-mi-in-gub
4. ud dug₃ nam-he₂-a buluġ₃-e-de₃
5. ġi₆ [...] giri₁₇-zal-e pa e₃ ak-de₃
6. gu mu₂-mu₂-de₃ še daġal-e-de₃
7. a-eštub^{ku6} kar-ra gen₆-ne₂-de₃

21 ETCSL c.5.3.3, ll. 1-18. <https://etcsl.orinst.ox.ac.uk/cgi-bin/etcsl.cgi?text=c.5.3.3&display=Crit&charenc=j#>(접속일: 2025. 1. 20.).

8. [...]e nam-he₂-a ud sud₄-sul₃-ru-de₃
9. e₂-me-eš an-na niĝ₂-keše₂ ak-de₃
10. en-te-en a he₂-ĝal₂-la kar-ra gen₆-ne₂-de₃
11. ^den-lil₂ lugal kur-kur-ra-ke₄ ĝeštug₂-ga-ni na-an-gub

1. [안(an)이²²] 그의 머리를 [자랑]스럽게 들었고 좋은 날을 만들었다.
2. 그가 [...] 계획을 세웠고 사람들을 널리 퍼뜨렸다.
3. [엔릴(enlil)²³] 신이 거대한 황소처럼 땅에 발을 디뎠다.
4. 풍성한 좋은 날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5. 밤 [...] 즐겁게 만들기 위하여
6. 아마가 자라고 보리가 더 많이 열리게 하기 위하여
7. 잉어-물이²⁴ 강둑 안에 있게 하기 위하여²⁵
8. 강력한 해가 [...] 멀리 있게 하기 위하여
9. 여름이 하늘 줄에 (뭉기) 위해서²⁶
10. 겨울에 비가 선창에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²⁷
11. 온 땅의 왕 엔릴 신이 주의를 기울였다.

이 문단은 하늘의 신 안(an)과 땅을 다스리는 신 엔릴(enlil)이 살기 좋은

-
- 22 안(an) 신은 하늘의 신이며, 슈메르 전통 속에서 다른 신들의 아버지가 되는 고위 신이다. 이 이름을 사각괄호 안에 넣은 이유는 토관이 훼손되었기 때문인데 남은 흔적과 사본들을 기초로 재구성하였다.
 - 23 엔릴(enlil) 신은 바람의 신이며, 지상에서 신들의 왕 역할을 맡은 신이다.
 - 24 잉어-물(a eštub)을 직역하면 '잉어가 (가득한) 물'이지만 봄에 닥치는 '이른 홍수'를 의미한다.
 - 25 홍수가 강둑 안에 머물러 있다는 말은 홍수가 일어나도 범람하지 않아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뜻이다.
 - 26 여름은 건기이기 때문에 태양이 자기 궤도를 따라 움직이되 멀리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 27 겨울은 우기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강물이 불어난다는 말이다.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묘사한다. 이 문단의 구조를 보면 안과 엔릴 신의 이름이 서로 대응하고 ‘좋은 날’(ud dug₃)이라는 말이 따라오며 대구법을 사용하고 있다(1-4행). 또한 엔릴이 하는 일을 더욱 자세히 묘사하면서 ‘~하기 위해서’(de₃)라는 표현을 7번이나 사용하며 반복법을 보여준다(4-10행). 마지막으로 엔릴 신이 하는 일들을 열거한 목록을 가운데 두고 앞과 뒤에 같은 동사(gub)를 배치하여 반복법과 수미상관법을 쓰고 있다(3, 11행). 슈메르어 낭송법을 정확히 재구성할 수 없으나 전체 11행 중 9번이 ‘에’ 모음으로 끝난다면 일정한 운율을 생각하고 창작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문단은 신들이 창조하는 사건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전달하기보다는 세상이 처음 생기던 날의 풍경이 어떠했는지 그 심상으로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쓴 것이 분명하며, 그런 의미에서 ‘시’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12. hur-saġ gal-gal-la ġiš₃ bi₂-in-dug₄ kur-re ha-la ba-an-šum₂
 13. e₂-me-eš en-te-en he₂-ġal₂ zi kalam-ma šaġ₄-ga mu-ni-in-ri
 14. ^den-lil₂-le ki ġiš₃ dug₄-ga-ni am-gin₇ mur im-ša₄
 15. hur-saġ-e ud ki-bi-še₃ nam-zal ġi₆ haš₄ nam-mi-ib-dug₄
 16. e₂-me-eš en-te-en i₃-he-nun-na-gin₇ šu nam-ta-ab-us₂
 17. am gal-gin₇ temen-na hur-saġ-ġa₂-ka u₂ sikil mu-un-gu₇-e
 18. šaġ₄-tum₂-šaġ₄-tum₂ hur-saġ-ġa₂-ka gu₂ mu-un-peš-peš-e

12. 그가 매우 거대한 산과²⁸ 사랑을 나누었고, 땅에게 자기 몫을²⁹ 주었다.

28 바람의 신 엔릴이 산과 사랑을 나누는다는 말은 하늘과 땅을 각각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전통적으로 엔릴의 부인은 닌후르싸가(ninhursaga) 즉 ‘산의 여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다.

29 이 표현은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 씨를 준다는 말로 성행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13. 여름과 겨울을, 땅의 풍성함과 생명을 그 속에 채웠다.
14. 엔릴 신이 땅과 사랑을 나누었고, 야생 소 같은 울부짖음이 있었다.
15. 산이 그곳에서 낮을 보냈고 밤에 그녀의 다리를 벌렸다.
16. 여름과 겨울을 그녀가 귀한 기름처럼 낳았다.
17. 거대한 야생 황소처럼 산기슭에서 (그들에게) 순전한 풀을 먹였고,
18. 산의 목초지에서 그들을 길렀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여름과 겨울이 태어나는 장면이다. 엔릴 신이 산 또는 땅과 사랑을 나눈다는 문장들과(12, 14행) 여름과 겨울이 잉태되어 태어나는 장면이(13, 16행) 서로 상응하고(A-B // A'-C), 여름과 겨울이 풀을 먹으며 자란다는 문장들이(17, 18행) 또 한 번 대구법으로 등장한다. 이 문단은 고대 서아시아 문학에서 문학적인 문체로 기록한 작품들이 어떤 모습인지 매우 잘 보여주는데, 주제 자체가 신화적이면서도 서로 상응하는 병행법(parallelism)을 즐겨 사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비교 연구를 위해 <암양과 곡식>의 논쟁을 살펴보면,³⁰ 안 신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언덕 위에서 아누나(anuna '고귀한 자손') 신들을 낳았을 때, 아직 곡식도 양도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한다. 그 후에 신들이 양과 곡식을 창조해서 젓과 빵을 즐겼고, 엔키(enki) 신의 제안에 따라 사람들에게도 양과 곡식을 내려보내기로 했다.³¹

37. 그때에 엔키 신이 엔릴 신에게 말했다.
38. “아버지, 엔릴 신이여, 이제 암양과 곡식이

30 본문의 자역과 영문 번역은 ETCSL c.5.3.2[, <https://etcsl.orinst.ox.ac.uk/cgi-bin/etcsl.cgi?text=c.5.3.2&display=Crit&charenc=j#>(접속일: 2025. 1. 20.)]을 참조하라. 미터마이어는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번역을 제안한다(Mittermayer [2019], pp. 38-39). 운문의 특징이 아니라 이야기를 예로 드는 본문은 자역(transliteration)을 생각한다.

31 엔키(enki) 신은 지하수 즉 담수의 신이며 지혜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언제나 인류에게 호감을 가진 존재로 신화에 등장한다.

39. 빛나는 언덕 위에 살고 있습니다.
40. 빛나는 언덕에서 그들이 내려가게 합시다.”
41. 엔키 신과 엔릴 신이 빛나는 말씀을 나누었고
42. 암양과 곡식을 빛나는 언덕에서 내려보냈다.

엔키 신이 엔릴에게 하는 말과(37-40행) 그들이 대화했다는 문장이 (41행) 내용 면에서 상응하지만, 사용한 동사가 전혀 다르고 분량 역시 크게 차이가 난다. 암양과 곡식을 신들이 사는 빛나는 언덕 위에서 내려보낸다는 말도 두 번 나오지만(40, 42행) 동사 형태가 전혀 다르고, 무엇보다 첫째 문장을 두 행에 걸쳐 적으면서(38-39행) 행에 맞추어 쓰는 운문 형태가 파괴되었다. 시적인 아름다움보다 내용 전달이 더 중요하게 간주된 것처럼 보인다.

43. 암양은 양우리에 갇혀 있고
44. 푸른 풀을 충분히 주었다.
45. 곡식은 밭에 두었고
46. 쟁기 명에 소들을 주었다.
47. 암양이 양우리에 서 있고
48. 양우리의 목동이 매력을 뽑는다.
49. 곡식이 고랑에 서 있고
50. 아름다운 처녀가 매력을 품고 있다.
51. 밭에서 머리를 바로 세우며
52. 하늘의 풍성함을 널리 퍼뜨린다.
53. 암양과 곡식은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 문단에서 암양과 곡식이 정착한 장소와(43-44행과 45-46행이 대응) 그들을 돌보는 책임자들(47-48행과 49-50행이 대응)은 분명하게 대구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밭에서 일하는 처녀를 묘사하는 문장이 구조

를 깨면서 삼입되었고(51-52행), 서둘러서 암양과 곡식의 모습을 언급하는 문장으로 마무리를 했으나(53행), 문단 앞부분에 나왔던 구조적인 아름다움은 되살릴 수 없었다. 같은 현상은 다음 문단에도 반복된다.³²

다시 말해서 논쟁 시의 서문은 구조나 표현법 면에서 운문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지만, 특정한 사건을 시간 순서에 따라 묘사하거나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싶을 때 운문에서 벗어나 산문에 가까운 문장을 쓰기도 하였다. 이때 고대의 저자가 운문과 산문을 양식별로 구분해서 썼는지 확인할 수 없는데, 저자가 원하는 주제를 표현하기 위하여 두 가지 양식을 혼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3.2. 논쟁에 나오는 이야기

논쟁 시에서 본론에 해당하는 논쟁은 서로 반대측에 서 있는 주인공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자신이 인류에게 더 소중한 존재이며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대화이다. 각자의 논리를 내세우며 다양한 증거를 제시하는데, 이때 수사학적 질문과 같은 문학적 도구와 지혜문학의 기본 문학양식인 목록 형태를 자유롭게 사용한다. 문학적인 표현을 첨가하여 한 행에 심상 하나를 표현하면 운문에 가깝고, 부연설명을 하면서 풀어 쓰면 산문에 가깝게 들린다.

예를 들어 위에서도 인용한 〈여름과 겨울〉의 논쟁을 살펴보자. 겨울이 여름에게 하는 말이다.

225. “내 형제여, 네가 그 빛나는 쟁기를 곳간에 넣었을 때,

226. 창고에 네가 저장한 것들을 (넣었을 때), 불처럼 네가 소리를 질렀다.

32 암양과 곡식이 풍성한 삶을 가져왔다는 문장이 54행 // 55행 그리고 56행 // 57행에서 대구법으로 나오다가, 마지막 문장을 58행에서 다른 말로 덧붙였다. 그 후에 59-60행과 61-62행은 내용 면에서 서로 상응하지만 구조와 표현이 정확한 대구를 이루지 않았다.

227. 네가 앉아서 풍성히 먹고 마셨다.
 228. 땅에서 머리가 되는 것을³³ 네가 들었다.
 229. 내 왕의 이름을 엔릴의 아들 난나(nanna)³⁴ 신을 따라 불렀고,
 230. 이비-쑤엔(^di-bi₂-^dsuen)이³⁵ 슈투르-옷과 후르썩-옷을 입었고,
 231. 바르둘-옷과 너람-옷을 네가 주의 깊게 만들었고,
 232. 신들의 축제를 네가 완벽하게 준비했고,
 233. 아누나 신들이 그 빛나는 몸에 옷을 입었을 때,
 234. 에남틸라(e₂-nam-til₃-la) 신전, 그의 거룩한 거처에서 안(an)이 왕권을 세웠고,
 235. 그 만족스런 장소에서 그들이 좋은 것들로 잔치를 준비했다.”

이 장황한 문단은 겨울 즉 우기가 끝나고 여름이 오기 전에 추수를 하고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농기구와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들고 왕이 신전에서 추수감사제 축제를 열어 자신의 왕권을 재확립하는 의식을 치른다고 하였다. 쟁기를 곳간에(225행) 그리고 창고에 온갖 것을(226행) 저장한다는 표현은 대구법으로 볼 수 있고, 난나 신을 딴 이름이 이비쑤엔(229-230행)이고 에남틸라 신전이 만족스러운 장소라고(234-235행) 말할 때도 다른 말로 같은 대상을 묘사하며 부분적인 대구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단 전체를 흐르는 문맥은 이야기에 가깝다. 추수하고 저장하기, 풍성한 음식을 먹기, 왕이 좋은 옷들을 입기, 신상들도 좋은 옷을 입히기, 신전에서 왕권 확립을 위한 의식 시행하기, 그리고 잔치를 벌이기까지 여러 사건을 시간 순서에 따라 서술하기 때문이다. 왕이 입는 옷 이름 네

33 여기서 ‘머리’는 생산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가리킨다.

34 난나(nanna) 신은 달의 신이며, 계절의 변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풍요의 신이기도 하다.

35 이비-쑤엔은 우르 제3왕조의 마지막 왕이다(기원전 2028-2004년경에 다스림). 그의 이름에 들어 있는 쑤엔(^dsuen)은 달의 신 난나의 호칭이다.

가지가 나온 것은 이런 주제의 낱말들을 모은 모음집에서 직접 인용했을 것으로 짐작되고, 이 논쟁 시의 저자가 이런 다양한 자료를 보유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인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가장 흥미로운 것은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인물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여름과 겨울>의 논쟁은 분명히 역사가 시작되기 전 엔릴이 산 또는 땅과 짝이 되어 여름과 겨울을 낳았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슈메르 시대 말기에 실제로 왕위에 올랐던 인물이 등장하고 또 그의 왕권 강화가 주제인 것으로 보이는 문장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논쟁 시의 저자는 전통적인 문학 양식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운문 양식이 산문으로 변하는 시점에 이런 정치적 기록의 도를 찾게 된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논쟁 시 안에 이야기가 드러나는 또 다른 작품으로 <새와 물고기>의 말이다. ³⁶ 처음으로 하늘과 땅을 만들었을 때 엔키(enki) 신이 이디그나(티그리스) 강과 부라논(유프라테스) 강을 가지런히 놓았고, 갈대가 자라던 습지에서 물고기가 알을 낳고 새가 둥지를 틀었다. 그런데 새가 물고기에게 겁을 주었고 물고기도 당당하게 대들었다. 그래서 물고기와 새는 상대방의 행동 방식이나 외모 그리고 인간이 새와 물고기를 어떻게 대접하는지를 주제로 논쟁을 벌였다. 논쟁을 하며 나눈 대화도 다른 논쟁 시에 비하여 운문의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다음 문단은 거의 이야기로만 창작한 것으로 보인다.

102. 그때에 물고기가 새에 대적하여 계락을 꾸미기 시작했고,
 103. 조용히 아무도 몰래 그가 다가갔다.
 104. 새가 자기 새끼들의 먹이를 구하기 위해 둥지에서 일어섰을 때,

36 본문의 자역과 영문 번역은 ETCSL t.5.3.5 [[https://etcsl.orinst.ox.ac.uk/cgi-bin/etcsl.cgi?text=t.5.3.5#\(접속일: 2025. 1. 20.\)](https://etcsl.orinst.ox.ac.uk/cgi-bin/etcsl.cgi?text=t.5.3.5#(접속일: 2025. 1. 20.))]을 참조하라. 미터마이어의 독일어 번역도 참조하라[Mittermayer (2019), pp. 72-75].

105. 물고기는 가장 조용하고 비밀스러운 그 장소를 찾았다.
106. 그는 나뭇가지로 잘 지은 그 등지를 유령의 신전으로 만들었고,
107. 튼튼하게 지은 그 집을 파괴했으며, 그 창고를 허물어버렸다.
108. 그는 (새가 낳은) 알들을 깨뜨려서 바다에 던져 넣었다.
109. 물고기가 이렇게 새를 공격했고, 물속으로 도망쳤다.
110. 그때 그 새가 사자의 눈과 독수리의 발톱으로
111. 자기 등지를 향해 날개를 찢고, 날아오다가 멈추어 섰다.
112. 폭풍우가 하늘 한가운데서 도는 것처럼 그가 하늘을 맴돌았다.
113. 그 새가 자기 등지를 주시하면서 자기 날개를 폈다.
114. 나뭇가지로 잘 지은 그 등지를 드넓은 평원처럼 밟았다.
115. 그의 입이 여사제처럼³⁷ 하늘 한가운데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논쟁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물고기는 새의 등지를 찾아 파괴했고 새알도 깨뜨리는 폭력을 행사했으며, 집에 돌아온 새가 그 광경을 보고 비명을 지른다는 이야기이다. 새의 등지를 서로 다른 말로 반복해서 표현했을 때(105-107행)와 새의 모습을 여러 가지 비유법으로 묘사했을 때 이 문단의 문학적 성격은 엿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글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시간 순서에 따라 보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논쟁 부분에는 특정한 화자가 하는 말을 직접 인용하는 형식으로 대화를 기록해야 하는데, 인용문이 전혀 없이 이렇게 본격적인 이야기를 삼입한 것은 이 작품이 유일하다. 또한 논쟁은 일반적인 관행을 기초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추상적인 논리 전개가 특징인데,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주인공의 말이 아니라 구체적 행위가 묘사의 초점이 된다는 점 또한 혁신적인 변화이다.

37 슈메르 낱말 *nugig*은 ‘여사제’를 뜻하며 인안나(*inana*) 여신의 호칭으로 쓴다. 그러나 어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고, 문신이 있는 사람이나 신전 노예를 부르는 말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짐작한다. 이 작품에서 새가 우는 소리를 이 사제에게 비유했으므로, 높고 가는 목소리로 노래하는 사제였을 것으로 보인다.

물고기의 폭력 행위 때문에 평화롭게 논쟁을 해결할 수 없었고, 새와 물고기는 술기(^dsulgi) 왕 앞에 나아가 재판을 요구하기에 이른다.³⁸ 술기는 새의 손을 들어주는데, 그 이유는 에쿠르(e_2 -kur) 신전에서 거닐며 노래하는 새의 목소리가 곱기 때문이며 왕실은 물론 신들의 잔치자리에도 어울리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논쟁의 결론은 대화를 기초로 한 논쟁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야기가 묘사하고 있는 폭력 행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잔혹한 물고기의 행위와 구슬픈 새의 울음 소리를 전혀 참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이야기가 후대 필사가에 의해 삽입되었을 가능성을 묻게 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논쟁을 하면서 운문과 산문을 번갈아 쓸 수는 있지만 문학양식의 기본 구조를 벗어나서 신화나 우화에 가까운 이야기를 덧붙이지 않는 것이 전통이었고, 그렇게 하는 순간 문맥이 전혀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³⁹

3.3. 결론에 나오는 이야기

마지막에 판결하는 신이나 왕은 본론에 등장하지 않으며 논쟁에 뛰어들지 않는다. 판결자들은 대부분 논쟁하는 양측이 처음부터 싸울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을 취하며 서로 관대하게 대할 것을 권한다. 그러나 한쪽을 승자로 인정하기는 하는데,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으며 논쟁 내용과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에 엔키나 니싸바(^dnisaba) 여신을 찬양하라고 권하면서 끝나는데, 이 신들은 지혜와 서기들의 수호신이고 필사자나 낭송자에게 겸손한 태도를 명령하는 것으로 보인다.⁴⁰ 상대적으

38 술기(^dsulgi) 왕은 우르 제3왕조의 왕이며(기원전 2094-2046년경에 다스림) 전설적인 명성을 가진 자이다.

39 H. L. J. Vanstiphout (1992), "The Mesopotamian Debate Poems, A General Presentation, Part II: The Subject," *Acta Sumerologica* 14, p. 354을 참조하라.

40 Herman Vanstiphout (2014), "The Sumerian Debate Poems: A General Presentation, Part III," *He Has Opened Nisaba's House of Learning: Studies in Honor of Åke Waldemar Sjöberg*

로 분량이 짧은 결론은 운문과 이야기를 적절히 섞어서 표현한다.

예를 들어 <팽이와 쟁기>의 논쟁은 다음과 같이 끝난다.⁴¹

186. 엔릴 신이 팽이에게 말했다.

187. “팽이야, 그렇게 심하게 화내지 말아라!

188. 그렇게 경멸하듯 고개를 떨구지 말아라!

189. 팽이야, 니짜바가 그의 조사관이 아닌가? 니짜바가 그의 감독관이 아닌가?

190. 서기가 네가 (한) 일을 기장할 것이다. 그가 네 일을 기장할 것이다.

191. 팽이 5깃(giĝ₄), 팽이 10깃(이라고) 네 장부에 넣을 것이다.

192. 팽이 1/3마나, 팽이 1/2마나(라고) 네 장부에 넣을 것이다.

193. 여중처럼 서서 맡은 일을 다하여라.”

194. 팽이와 쟁기가 논쟁을 했고

195. 팽이가 쟁기를 이겼다.

196. 니짜바를 찬양하라!

엔릴 신이 팽이를 위로하는 말(187행과 188행이 대응), 니짜바 신과 서기를 신뢰하라는 충고(189, 190행), 서기가 장부에 기입한 내용(191-192행)은 대구법을 사용했고, ‘팽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행이 여섯 번이나 나오면서 운문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감정을 표현한 문장들(187-188행) 외에는 문학적인 표현이 별로 없고, 노동과 관련된 수호신과 담당 관리를 믿으라는 현실적인 충고를 전달한다. 간단하게 승자를 선포하는 문장과 관례적인 찬

on the Ocasion of His 89th Birthday on August 1st, 2013 (ed. by Leonhard Sassmannshausen), Brill, p. 239.

41 본문 지역과 영문 번역은 ETCSL c.5.3.1 [<https://etcsl.orinst.ox.ac.uk/cgi-bin/etcsl.cgi?text=c.5.3.1&display=Crit&charenc=&lineid=c531.186#c531.186> (접속일: 2025. 1. 20.)]을 참조하라. 미터마이어의 독일어 번역도 참조하라[Mittermayer (2019), pp. 118-119].

양이 나오며 마무리된다. 단순한 시 또는 고상한 산문으로 작성했다고 볼 수 있다.

3.4. <왜가리와 거북이>의 논쟁

논쟁 시에 이야기를 삽입하는 관행은 <왜가리와 거북이>의 논쟁에서 절정에 달하는데, 운문과 산문 중 어떤 것이 더 우선하는 서술형식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이다.⁴² 작품 머리에는 서론에 해당하는 배경 설명이 나오는데, 슈메르 남부 도시들 근처에 펼쳐진 갈대밭과 갈대 종류를 자세히 소개하며 시작한다. 그런데 그 강가에 앉아서 왜가리 알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말이 나오고, 이어지는 문맥에 따르면 거북이가 한 말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제삼자인 화자의 입을 통해 거북이가 물고기를 잡고 알을 깨뜨리고, 두꺼비와 왜가리의 알을 깨뜨린다고 묘사한다. 둘째 주인공인 왜가리가 이 시점에 등장하는데, 엔키 신에게 알을 낳을 장소를 달라고 요구하여 갈대밭을 받는다(32-47행). 갈대밭 묘사와 거북이의 생활 습관을 묘사하는 부분은 신화적 서론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왜가리가 엔키 신에게 갈대밭을 수여받는 부분은 태초에 일어났을 법한 일이므로 의심을 잠재우며 논쟁 시의 기본 구조로 돌아간다.

본론이 시작되면서 갈대밭의 골칫거리로 나오는 거북이가 왜가리에게 싸움을 걸겠다고 마음을 먹는데, 거북이가 뱀처럼 생겼고 개처럼 물고 화덕에서 구운 벽돌처럼 단단하다고 묘사한다. 그리고 나서 거북이가 왜가리를 공격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60. 거북이, 새를 잡는 자, (뺨을) 놓는 자가

42 ETCSL c.5.9.2 [<https://etcsl.orinst.ox.ac.uk/cgi-bin/etcsl.cgi?text=c.5.9.2#>(접속일: 2025. 1. 20.)]. 옥스퍼드 대학의 슈메르 문학 누리집은 이 작품을 ‘논쟁 시’(Debate Poem)에 넣지 않고 ‘기타 작품들(Various compositions)’에 넣을 정도이다.

61. 왜가리가 지은 갈대 (둥지를) 뜯어냈고,
62. 가까이 있는 둥지를 엮어버렸다.
63. 그의 새끼들을 물에 던졌다.
64. 검은 눈을 가진 그 새를,
65. 거북이가 그의 이마를 발톱으로 내리쳤고,
66. 그의 피가 가슴을 덮었다.

상대방의 둥지를 공격한다는 내용은 <새와 물고기>의 논쟁에 삽입했던 이야기와 유사하지만 표현이 상당히 다르고 폭력행위도 훨씬 감각적이고 감성적으로 묘사했다. 둥지를 공격할 때는 대구법을 썼지만(61행과 62행이 대응), 그 외 다른 문장들은 내용을 전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왜가리가 울면서 하는 말이 나오는데(65-71행), 거북이는 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물고기들을 잡고 알을 깨뜨리며 공격한다고 한다(72-78행).

74. 그가 물고기를 잡고 그 알을 모두 모아서 옆으로 던져버렸다.
75. 울랄(u₂-lal₃)-풀 사이에서 쉰후르(suhur^{ku6})-물고기를 [잡아서 던졌고],
76. 에쉬툽(eštub^{ku6})-물고기를 어린 기지(gi-zi)-갈대 사이에서 잡아 던졌다.
77. 두꺼비를 리기리기(li-gi₄-li-gi₄)-풀 사이에서 [잡아서] 던졌고,
78. 물고기 알, 그의 후손, 그의 가족을 [잡아서 던졌다].

결국 왜가리가 엔키 신전에 들어가서 호소하고 거북이의 만행을 고소하였고, 엔키 신이 부관인 이씨무드에게 어떤 상자를 제작하라고 명령하고 어떤 일을 명령하는데, 본문이 훼손되어 문맥을 확실히 알 수 없다. 엔키 신이 논쟁 시 작품처럼 승자가 누구였는지 판결을 했을 수도 있지만, 판결보다는 계락을 써서 문제를 해결했을 가능성도 크다. 이런 경우 <왜가리와 거북이>는 서사시나 우화에 가깝게 창작되었을 수도 있고, 운문보다 산문이 전면에서 등장한 것과 일정한 관련이 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물론 보존 상

태가 더 좋은 판본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확정할 수 없는 가설에 불과하다.

4. 결론

슈메르어 논쟁 문학은 시와 이야기가 섞인 대화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문학양식을 규정하기 어렵고 적절한 이름을 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시나 이야기에 대한 현대인의 개념 정의에 따라 고대 문학작품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고대 슈메르 사회에서 문학 활동을 시작한 집단의 성격과 그들의 활동 양태를 고려하여 논쟁 문학의 형태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슈메르어 췌기문자는 특정 직업인들과 직업적 서기들의 활동과 관련이 깊고 한 줄(또는 한 칸)에 한 가지 정보나 심상을 표현하는 필기 관행을 발전 시켰다. 이런 기록 전통은 지혜문학 안에서 목록 형태의 낱말 모음집이나 속담 모음집에 잘 나타나며, 슈메르어 논쟁 문학은 이런 목록들을 주제에 따라 선별하고 대화 형태로 엮은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수집 분류 단계의 변형 작품). 그러므로 논쟁 문학은 기본적으로 시에 가깝고, 어떤 문학적 의도가 있을 경우 운문에 이야기를 부연하여 설명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아직도 문학적 표현을 시처럼 사용하는 고상한 산문의 형태를 띤다.

슈메르어 논쟁 시 본문을 관찰한 결과 추상적인 논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전달하는 경우, 그리고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나 문장이 있는 경우에 이야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하면 이야기는 논쟁 시의 주제를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독자 또는 청중에게 전달되는 어조를 결정하는 기능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고, 왕궁이나 신전, 서기 학교에서 또는 시장에서 낭송을 통해 전달하고, 기록으로 옮기고, 후대 사람을 포함한 제삼자가 기억하는 데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⁴³ 또 문학적으로 어떤 사상이나 심상이 아니라 임의의 행동을 묘사하는 데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는 점은 큰 변화라고 생각된다.

논쟁 시에 이야기가 나올 때 특정한 역사적 인물을 언급한 경우가 발견되어 문학 작품을 새로운 형태로 창작하려는 의도가 정치적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문학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직업 서기들이었고 이들 중 다수는 왕궁과 신전에 소속된 관리였다는 사실 역시 슈메르어 문학을 해석할 때 정치적 영향을 감안해야 할 이유로 충분하다.

논쟁 시에서 이야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대화의 양이 줄어들면 글의 문학양식이 서사시나 우화에 가까워지는 현상도 발견하였다. <새와 물고기>의 논쟁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완전히 흡수되지 않아서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왜가리와 거북이>는 논쟁보다 문제를 해결하며 줄거리를 흥미롭게 이끌어 가는 쪽으로 서술 방향이 달라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들을 볼 때 슈메르 문학은 살아 숨쉬며 끊임없이 실험하면서 변화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시와 이야기는 처음부터 분명하게 구분된 문학적 형태였다기보다 실용적인 문서 작성 관행과 달리 문학적인 작품을 창작하기 위한 도구로 구분 없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문학적 창작의 주요 형태는 운문이었고, 특정한 의도와 필요에 따라 고상한 산문을 자유롭게 섞어서 썼던 것이다. 벨두스는 어떤 사람들이 특정한 사회적 문맥을 헤쳐나가기 위해 사용했던 지식에 관해 말하면서 “지식의 타당성과 유용성은 사회 구조와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했는데,⁴⁴ 그의 말은 논쟁 시의 문학적 형태에 관해서도 유효하다.

43 Vogelsang (1991), pp. 53-54을 참조하라.

44 Niek Veldhuis (2014), “Intellectual History and Assyriology,” *Journal of Ancient Near Eastern History*, <http://doi.org/10.1515/janeh-2013-0006>(접속일: 2025. 1. 20.).

참고문헌

- 윤성덕(2024), 「고대 서아시아 지혜문학의 분류법: <주인과 종의 대화>를 중심으로」, 『서양고대사연구』 69, pp. 7-31.
- Aytekin, Cemile Arzu (2014), "On the Tracks of Literary Structure in Literary Work (a Sumerian Poem),"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58, pp. 43-50.
- Black, Jeremy (1998), *Reading Sumerian Poetry*,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Black, J. A. (2005-2012), "Poesie," *Reallexikon der Assyriologie und vorderasiatische Archäologie* (eds. by Erich Ebeling and Bruno Meissner), Bd. 10, Berlin and New York: de Gruyter, pp. 593-597.
- Edzard, D. O. and Röllig, W. (1990), "Literatur," *Reallexikon der Assyriologie und vorderasiatische Archäologie* (eds. by Erich Ebeling and Bruno Meissner), Bd. 7, Berlin and New York: de Gruyter, pp. 35-48.
- Denning-Bolle, Sara J. (1987), "Wisdom and Dialogue in the Ancient Near East," *Numen* 34/2, pp. 214-234.
- Heiden, Bruce (2014), "Narrative in Poetry: A Problem of Narrative Theory," *Narrative* 22/2, pp. 269-283.
- Hühn, P. (2010), "Plotting the Lyric: Forms of Narration in Poetry," *Literator* 31/3, pp. 17-47.
- Jiménez, Enrique (2017), *The Babylonian Disputation Poems, With Editions of the Series of the Poplar, Palm and Vine, the Series of the Spider, and the Story of the Poor, Forlorn Wren*, Leiden and Boston: Brill.
- Michalowski, Piotr (2010), "Maybe Epic: The Origins and Reception of Sumerian Heroic Poetry," *Epic and History* (eds. by David Konstan and Kurt A. Raaflaub), Malden and Oxford: Wiley-Blackwell, pp. 7-25.
- Mittermayer, Catherine (2019), 'Was sprach der eine zum andern?' *Argumentationsformen in den sumerischen Rangstreitgesprächen*, Berlin, Boston: Walter de Gruyter.
- Reinink, G. J. and Vanstiphout, H. L. J. (1991), "Introduction," *Dispute Poems and Dialogues in the Ancient and Medieval Near East: Forms and Types of Literary Debates in Semitic and Related Literature* (eds. by G. J. Reinink and H. L. J. Vanstiphout), Leuven: Department Oriëntalistiek and Uitgeverij Peeters, pp. 1-6.
- Vanstiphout, H. L. J. (1990), "The Mesopotamian Debate Poems, A General Presentation (Part I)," *Acta Sumerologica* 12, pp. 271-318.
- Vanstiphout, H. L. J. (1992), "The Mesopotamian Debate Poems, A General Presentation, Part II: The Subject," *Acta Sumerologica* 14, pp. 339-367.
- Vanstiphout, Herman. (2014), "The Sumerian Debate Poems: A General Presentation, Part III," *He Has Opened Nisaba's House of Learning: Studies in Honor of Åke*

- Waldemar Sjöberg on the Ocasion of His 89th Birthday on August 1st, 2013 (ed. by Leonhard Sassmannshausen), Leiden: Brill, pp. 229-240.
- Veldhuis, Niek (2003), "Sumerian Literature," *Cultural Repertoires: Structure, Function, and Dynamics* (eds. by G. J. Dorleijn, Herman L. J. Vanstiphout), Leuven: Peeters Publishers, pp. 29-44.
- Veldhuis, Niek (2014), "Intellectual History and Assyriology," *Journal of Ancient Near Eastern History*, <http://doi.org/10.1515/janeh-2013-0006>(접속일: 2024. 12. 17.).
- Vogelsang, Marianna E. (1991), "Some Questions about the Akkadian Disputes," *Dispute Poems and Dialogues in the Ancient and Mediaeval Near East. Forms and Types of Literary Debates in Semitic and Related Literatures* (eds. by G. J. Reinin and H. L. J. Vanstiphout), Leuben: Department Oriëntalistiek and Uitgeverij Peeters, pp. 45-57.

원고 접수일: 2025년 4월 10일, 심사완료일: 2025년 5월 12일, 게재 확정일: 2025년 5월 12일

ABSTRACT

Poetry and Narrative in Sumerian Dispute Literature

Yun, Sungduk*

Sumerian dispute poems, a form of wisdom literature, have traditionally been understood as having been written in verse, with narratives describing events that were inserted as needed. However, it is clear that the people of ancient West Asia had a different literary tradition of poetry or narrative compared to the modern period.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groups that initiated the literary activity and the modes of their activity, professional scribes used cuneiform scripts to create written documents and they frequently used various lists, which contain a piece of information or image in a single line (or space). Such lists were quite similar to the verse form. In their narratives, they often employed poetic techniques to craft elevated prose. A direct examination of the dispute poems reveals an organic mix of poetry and narrative, with the latter appearing to describe events in chronological order or to emphasize certain points. There is also the possibility that the narrative in dispute poems had a political agenda, as certain historical figures are mentioned in the narratives. However, a shift in literary style was also observed, marked by a decline in poetic dialogue and a growing emphasis on narrative. After all, Sumerian dispute poems were in a constant state of flux between poetry and narrative.

Keywords Dispute Literature, Sumerian, Poetry, Narrative, Literary Genre

*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Christianity and Korean Culture, Yonsei University